

“윤 대통령 ‘전남 발전 청사진’ 지역건설업계 적극 환영”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강조 마찬호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 “정부 신속 추진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전남 발전 청사진에 대해 지역건설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마찬호)는 17일 “지난 14일 무안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

한 초고속도로(아우토반) 고속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한 전남지역 발전 청사진에 대해 지역건설업계를 대표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사진으로 광주-영암 47km 구간 초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2조6천억원 투입, 예타 중인 광주-강진 고속도로에 이어 완도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 건설, 익산-여수 180km 구간 고속철도망 연결을 위한 1조원 투입 등을 제시하며 교통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는 140km/h 이상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이다. 이는 점차 늘어나는 자동차 동호인과 일본, 중국 마니아층 등을 타깃으로 자동차 문화를 즐기고, 새로

운 도로체계를 준비하는 미래 자동차산업의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완도-강진 고속도로는 1조6천억원을 투입해 해남에서 강진까지 38.9km 구간을 있는 전남 남부권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28년 착공돼 전남 남부권 관광과 산업발전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화는 1조원 이상을 투입해 낮은 속도로 제 기능을 발

휘하지 못하는 전라선을 지방주민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사업 시행시 서울-용산-여수 익스프레스를 운행하는 대부분의 열차(82%)가 2시간대로 운행하게 되며, 1조8천93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1만1천48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찬호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시한 청사진은 전남 발전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일감확보가 절실한 지역건설업계를 위해 정부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약무호남 시무국가(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와 같이 지역건설업계도 지역 인력 고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전남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상승세 꺾인 기름값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ㄹ 당 1천693.2원으로 직전 주 대비 상승 폭이 0.1원을 기록했다. 6주간 상승세를 이어온 경우 평균 판매가격은 이번 주 ㄹ 당 1천539.7원으로 직전 주 대비 0.4원 하락했다.

“여수지역·국가산단 아우르는 경제 생태계 구축할 것”

한문선 제25대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한문선 보임열병합발전주 대표이사 제25대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취임했다. (사진) 여수상공회의소는 17일 “지난 15일 상의 1층 챔버홀에서 ‘제24·25대 회장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취임식에는 여수상공회의소 전·현직 회장, 상공의원들을 비롯해 주요 기관·단체장, 도의원, 언론사, 회원업체 대표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홍보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공로·감사패 전달, 이·취임사, 명예회장 추대패 전달, 축사, 지역사회상생



발전기금 전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국가산단 내 여천선 철로 재활용을 통한 용지 확보, 교통문제 해소, 공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정부 건의사항을 조속히 만들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경제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여수지역·국가산단을 아우르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취임식에서 한문선 회장은 사재를 출연해 여수시에 지역사회상생발전기금 1억원을 기탁했고, 부회장인 조성중 ㈜마린글로벌 회장은 여수상의 발전기금 1억원을 한 회장에 기탁했다. /여수=김진선기자

금호타이어, 전기차 전용 ‘이노뷔’ 출시

세계 최초 단일 제품 HLC기술 전 규격 적용

금호타이어가 17일 전기차 전용타이어 브랜드 ‘이노뷔(EnnoV·사진)’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노뷔(EnnoV)는 ‘전기’를 뜻하는 ELECTRIC과 ‘혁신’을 뜻하는 INNOVATION의 결합어로 금호타이어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모두 담은 EV 전용 프리미엄 브랜드다.

이노뷔(EnnoV)는 세계 최초로 단일 제품에 HLC기술을 전 규격에 적용한 차세대 전기차 전용 타이어다.

HLC(High Load Capacity) 기술은 전기자동차와 같은 고하중 차량에서 일반 제품 대비 동일한 공기압 조건에서도 더 높은 하중을 견딜 뿐만 아니라 최적의 성능을 구현하는 구조 설계 방식이다. 금호타이어는 미래 모빌리티의 혁신을 가져올 HLC기술을 기반으로 전기자동차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성능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도록 이노뷔(EnnoV)를 설계했다.

이노뷔(EnnoV)는 사계절(All-season)용 EnnoV PREMIUM, 겨울용(Win-



ter) EnnoV Winter, 롱마일리지용(Long-mileage) EnnoV SUPERMILE 3개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 중 EnnoV PREMIUM은 세계 최초로 전 규격(29개 규격)에 HLC기술을 적용해 어떠한 주행 환경에서도 최고의 주행성능, 승차감, 내마모 뿐만 아니라 저연비 성능까지 완벽하게 제공한다.

특히 이노뷔(EnnoV)는 타이어 홈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댄플(dimple) 설계로 분산시키는 ‘타이어 소음 저감 기술’과 타이어 내측에 부착하는 K-Silent 기술인 폴리우레탄 재질의 Foam을 부착해 타이어의 공명음과 지면과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했으며, 패던 설계 해석 시스템을 활용해 주

행 및 내마모 성능을 향상시켰다. 또한, 연비뿐만 아니라 승차감 및 제동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분산 정밀 실리카가 적용된 EV 전용 컴파운드를 사용했으며, 일반 제품 대비 마모성능과 제동력 등을 대폭 개선해 주행 안정성을 업그레이드시켰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은 “이노뷔(EnnoV)는 전기차에 최적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출시한 금호타이어의 혁신 제품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걸맞게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운전자에게 최상의 드라이빙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광주상의 회장 선거 18년만에 경선

김보곤·한상원 후보 최종 등록

제25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18년만에 경선으로 치러진다.

17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일 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13·16일 후보를

접수한 결과 김보곤 대케이 회장과 한상원 다스코회장이 등록했다.(7기·다순)

김 후보는 ▲회원 중심의 광주상의 운영 ▲세대와 업종을 아우르는 화합의 장 구현 ▲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의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생산적인 운영시스

템 구축 등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했다. 한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광주 군공항 부지 미래산업 유치 ▲양대농촌 산업평화선언 ▲영농형 태양광 확대 보급 ▲한전 경영 정상화 ▲RE100 정책 지원 등을 내세웠다.

광주상의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해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임채만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갖는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가득한 무안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4,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 무안군

문의 : 062)650-2099